

16장 속죄일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의 피로 백성의 죄를 속하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는 날이다. 1-10장에서 제사에 관한 규례를 다루었는데 16장에서 다시 속죄제를 이야기하여 백성을 죄와 오염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16장의 속죄제 규례는 11-15장의 정결예법의 마지막 장이다. 속죄일의 규례는 성전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성전이 부정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된다(참조. 15:31).

속죄일은 7월 10일에 죄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날이다. 그날은 큰 안식일이고,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살피는 날이었다(23:27-32). 속죄일은 7월 10일에 지켰는데 같은 달 15일은 장막절로 지킨다. 그때는 가을 추수가 진행되는 도중이었고 사람들은 풍요함으로 만족하며 지내기가 쉬웠다. 그러한 계절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반역죄와 부정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신다.

1. 역사적 배경 (16:1-2)

속죄일에 대한 규례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드리려다가 여호와에게서 나온 불에 삼켜져 죽임을 당한 일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시작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16:2, 13).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분께 가까이 나오는 자, 곧 제사장 중에서 거룩하다 함을 얻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보이시겠다고 하셨다(10:3).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지만 아무렇게나 들어오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순종함이 생명임을 밝히 가르쳤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속죄일에 제사장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데에 집중하게 한다.

2. 제사 준비

1) 아론과 백성의 준비 (16:3-5)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준비하고 번제 제물로 수양을 준비한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고 세마포 속옷, 고의, 띠, 관을 써야 하였다. 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치장을 모두 벗어 버리고 고운 모시로 겹옷, 속바지, 띠, 관을 만들어서 착용하였다. 그는 속죄일의 제사와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일을 마친 후에 이 옷을 벗고 몸을 씻은 다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자기와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려야 하였다(16:23-24).

백성은 속죄 제물로 숫염소 두 마리와 번제 제물로 숫양 한 마리를 준비하였고, 모시옷으로 갈아입은 아론은 백성에게서 제물을 취하였다.

2) 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제사 준비 (16:6-10)

아론이 제사를 위한 준비 단계를 서술하는데 먼저 강조되는 것은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로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다.

이어서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준비하는데 숫염소 두 마리를 사용한다.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제에 사용하고 다른 것은 아사셀을 위하여 구별한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상자에 ‘여호와를 위하여’와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쓴 나무 막대기 둘을 넣고 그것으로 제비를 뽑았다고 한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홍색실을 목에 감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홍색실을 뺄에 감는다고 한다.

3. 속죄 제사의 시행

1) 제사장을 위한 제사 (16:11-14)

아론은 속죄제 수소를 잡아서 자기와 자기의 집을 위하여 속죄하여야 한다. 자기를 위한 속죄이지만 그의 집을 언급한 것은 제사장 직분과 관련하여서 속죄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성소를 정결케 하

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고백해야 한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의 단, 곧 성소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피운 솥으로 향로를 채우고,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들고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로 위에 올린다. 향의 연기가 피어날 때에 그는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것은 속죄소를 그 연기로 가리게 하여 대제사장이 죽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죄가 없는 스랍들도 얼굴과 발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한 것처럼, 대제사장도 그분의 영광 보좌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시작한 속죄일의 규례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명확히 나타낸다.

분향을 행한 제사장은 회막으로 나와서 수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간다. 손가락으로 수소의 피를 뿌리되 속죄소의 동쪽면, 곧 속죄소의 앞부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서 일곱 번 뿌렸다. 이것은 제사장의 죄를 덮기 위한 속죄의 피였다.

2) 백성과 성전의 정결을 위한 제사 (16:15-19)

자기를 위하여 속죄를 한 제사장은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수송아지의 피를 뿌릴 때처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렸다.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부정함으로부터 성소를 속죄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의 반역죄로부터 속죄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부정한 상태에서부터 정결케 되어야 거기에서 드리는 속죄가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16:16a).

회막에 대하여서도 속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16절 하반부에 간략히 언급된 이 말은 20, 33절에도 나온다. 시온소에서 행한 것처럼 회막에서, 곧 성소에서 분향단에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한다(참조. 레 4:18).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은 그 회막이 부정한 백성 안에 있기 때문이다(16:16b). 그러한 부정에서부터 회막이 정결케 되어야 한다.

대제사장이 속죄의 일을 할 때에는 아무도 회막에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가 자기 자신과 자기 집,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 때에는 홀로 그 일을 감당하여야 하였다.

회막에서 성전 뜰로 나온 대제사장은 번제단을 위하여서도 속죄한다. 수소의 피와 솥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 주위의 뜰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일곱 번 뿌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단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였다. 개역에서는 '성결'이라는 한 단어만 옮겼는데, 두 단어로 이해하여야 '정결 법전'과 '성결 법전'의 내용을 잘 반영하는 것이 된다.

3) 아사셀 염소 (16:20-22)

레위기 16장에만 네 번 나오는 아사셀에 대하여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8, 10[x2], 26). 전통적이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의견은 아사셀이 '떠나가는 염소'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하여 백성의 모든 불의와 죄를 짊어지고 무인지경에 보내는 문맥과 잘 맞는다(16:21-22, 26). 아세셀 염소가 지닌 의미는 분명하다. 16:5에서 백성을 위한 두 마리의 솥염소의 하나였으므로 아사셀은 '속죄 제물'이다. 대제사장이 안수하여서 그들의 죄악과 죄와 관련된 반역을 그 솥염소에게 전가하여 황무한 황야로 보낸다.

4. 번제를 드림 (16:23-25)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그곳에 둔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접촉한 의복은 일상적인 것이나 속된 것에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두고 나온다. 제사장은 거룩한 곳에서 몸을 씻은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

제사장의 복장을 갖추어 입은 아론은 이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서 속죄를 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다. 지성소와 성소와 단을 정결케 한 후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

5. 속죄일의 규례

1)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행할 일 (16:26-28)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낸 자는 속죄의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옷을 빨로 몸을 물로 씻은 후에 진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를 것이고 그 일에 참여한 사람도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은 후에 진으로 들어올 것이다.

2) 백성의 의무 (16:29-31)

16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첫째, 백성의 의무를 알려준다. 속죄일은 백성과 무관하게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행하는 의식이 아니었다. 가을걷이가 한창일 때에 그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정결케 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였다(29절). 30절에서는 그 날에 ‘속죄’하여 ‘정결’케 되고 여호와 앞에서 ‘정결’케 된다고 가르친다. 이 날은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온전히 일을 쉬고 금식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였다(31절).

3) 제사장의 의무 (16:32-34)

대제사장이 젊어져야 할 의무가 있다. 백성이 스스로를 위하여 속죄하고 정결케 하는 일은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 회막과 단, 제사장과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과 같이 갔다(16:32-33).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속죄일의 규례를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로 주셨다.

묵상과 실천:

속죄일에 자기와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함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에 관한 규례는 정결예법의 마지막이면서 성결예법을 위한 준비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산에 이르러서 주님을 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큰 의미를 가진 대속죄일의 규례에서 강조되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문을 위하여

1. 제사장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정결케 함

성막이 더러워지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그의 백성들 사이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막의 정결케 함이 중요한 문제였다. 대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계속 임재하시도록 하려고 일 년에 한 번씩 죽음을 무릅쓰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였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의식하면서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고백하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속죄제는 ‘부지중에’ ‘부주의하게’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사장도 자기와 자기 가문이 부지중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심정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였다. 제사장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히 5:1-4).

2. 백성의 금식과 참여

속죄일에는 대제사장 홀로 성소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속죄일은 대제사장 혼자 일을 하는 날이 아니었다. 백성이 속죄제를 위하여 두 마리의 수염소를 준비하여야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날 하루종일 금식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쳐야 하였다. 그날은 일도 하지 않고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다. 7월 15일에 있을 초막절의 기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였다.

3.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속죄일에 두 마리의 수염소를 속죄제로 드렸다.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렸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보냈다. 이러한 속죄제로 성소의 부정과 죄가 속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제사가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된 것을 본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¹²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히 13:11-12)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부정함에서 정결케 되고 거룩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도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세례자 요한은 자기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으로 증언하였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옮기신 분이시다.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는 곳에서부터 멀리 옮기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 53:6-7)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지만, 우리의 반역죄를 하나님의 어린양이 지시고 잠잠히 죽음의 길을 가셨다(사 53:6-7).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려고 그분이 속죄제물로 드러지신 것이다.

4. 속죄양 이론과 우리의 속죄 제사

‘속죄양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우는 것이다. 정치적인 사건이나 사회적 사건이 생기면 항상 속죄양을 하나 지목하여 모든 책임을 거기에 묻는 일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그렇지만 속죄일을 사실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킨다. 대속죄일에 길게 서술하는 속죄제는 부주의하게 지은 죄나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이고, 부정한 것에서 정결케 되기 위한 제사이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죄에 대한 속죄의 길도 열어주셨으나 부주의하게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강조하여 가르친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 두시기 위함이다. 그분 앞에는 천사라도 얼굴과 발을 가려야 하고, 제사장도 향연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나 부정한 것을 접촉한 것이 작은 일 이 아니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더욱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바르게 보고 나를 낮추고 괴롭게 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계속되어야 한다. 대속죄일에 봉사한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와 자기 집의 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속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였다.

속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다른 것을 ‘속죄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집, 그리고 자기 교회의 죄와 부족을 주님께 아뢰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그릇된 속죄양 이론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16장 익힘 문제

1. 어떤 사람만 일 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2절)
2. 대제사장 아론이라도 아무때나 속죄소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2절)
3.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하고서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4절)
4. 속죄일을 위하여 준비된 두 마리 염소에 관한 것입니다.
 - 1) 여호와의 위하여 제비 뵈힌 한 염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 2)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된 염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 3) 아론이 안수한 아사셀 염소는 무엇을 지고 갔습니까? (21, 22절)
5. 아론이 속죄소 앞에 나아가서 죽음을 면하려면 무엇으로 속죄소를 가려야 하였습니까? (13절)
6. 아론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한 일은 속죄소의 위와 앞과 옆에 무엇을 뿌리는 것이었습니까? (15절)
7. 속죄일에는 백성의 죄뿐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도 속죄를 하였습니까? (16-20절)
8.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언제입니까? (29절)